

차, '특활비 뇌물' 혐의 추가기소 계획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가기소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자금 상납 사건 관련해서 이르면 금주 중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40여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자금의 사용방식과 이동경로 등을 대체로 파악한 상태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 '문고리 2인방'이라 불렸던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은 자신들이 '배달형'에 불과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원 받은 혐의

직접조사 실패 후 "더 늦출 이유 없다"

화이트리스트·헌인마을 의혹 등 제외

있다. 돈을 건넨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일부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돈을 상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상태다.

이 같은 조사를 통해 검찰은 국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자금의 사용 방식과 흐름 등에 대한 파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소소를 찾은 서울중앙지검 양석조 특수3부장에게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에 나서도 박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사실상 혐의 내용이 대부분 공개된 상태여서 더 이상 기소를 늦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추가기소에서 검찰은 화이트리스트, 헌인마을 이권 개입 등 또 다른 의혹과 혐의는 포함하지 않을 방침

이다. 일단 국정원 상납 관련 혐의만으로 추가기소할 뒤 이후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벌여 기소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검찰은 국정원 자금 관련자들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하지 않고 이후 순차적으로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특별비의 용처에 대해 박 전 대통령 본인에게 확인을 하지는 못했다"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집할 수 있는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수사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모두 동원해 용처를 추적해 왔다"고 했다.

뉴스스

中 양쯔강서 화물선 침몰 사고로 10명 실종

중국 상하이(上海) 인근 양쯔강 하구에서 화물선이 충돌 사고를 일으키고서 침몰해 승선 선원 10명이 실종됐다고 현지 당국이 3일 밝혔다.

상하이 해사국과 동해구조센터에 따르면 상하이 우쑹커우(吴淞口) 8호 묘박지에서 전날 밤 11시39분께 강재 5000t을 실은 화물선 창평(長平)호가 벨크화물선 신왕호와 부딪힌 다음 바다에 가라앉았다.

해경은 사고 신고를 받은 직후 경비선을 즉각 출동시키고 주변 해역의 선박 10여척을 동원해 구조에 나서 선원 3명을 구출했지만 다른 10명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당국은 헬기와 잠수부를 투입해 실종자에 대한 수색작업을 계속하는 가운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양쯔강과 상하이 앞바다를 연결하는 우쑹커우 해역은 선박 통행이 극히 활발한 곳으로 해상 충돌과 침몰 사고가 잦다.

파키스탄 총격테러로 경비병 등 12명 부상

파키스탄 남서부 도시 퀘타의 한 검문소에서 2일 저녁(현지시간) 테러범들의 총격으로 5명의 경비병을 포함한 12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현지 우르두TV 채널 두나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퀘타시의 발레리 지역에 있는 군 검문소에서 2명의 총격범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이들은 보안군쪽의 보복 사격으로 공격 직후 사살당했다고 이 방송은 보도했다.

양쪽의 치열한 총격전 와중에 5명의 보안군이 쓰러졌고 근처를 지나던 행인 7명도 중상을 입었다.

경찰과 구조팀, 증원된 보안군이 현장에 출동해 시신들을 끌어내고 부상자를 모두 병원으로 옮겼다. 보안군은 이 일대를 봉쇄하고 현재 수색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부 언론은 이번 공격이 자살 폭탄 공격이었다고 보도했지만 아직까지 공식 확인된 것은 없다.

파키스탄의 불법 무장단체 탈레반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페루 버스 추락사고 사망자 30명으로 늘어

페루에서 2일 낮 57명이 탑승한 버스가 험한 고속도로에서 절벽 아래 바위투성이 해변으로 추락해서 30명이상이 사망했다고 페루 경찰과 소방 구조대가 밝혔다.

사고 버스는 수도 리마를 향하던 중 낮 12시경 리마에서 북쪽으로 약 70km 떨어진 파사마요 지역의 "악마의 커브길"이란 별명이 붙은 좁은 절벽길에서 거대한 트레일라에게 추돌당한 뒤 절벽 80m 아래 해변으로 떨어졌다고 소방관방위대의 클라우디아 에스피노사 대장은 말했다.

태평양 연안의 바위가 많은 해변에 떨어진 파란 색 버스는 완전히 부서진 채 뒤집혔고 이미 사망한 승객들의 시신이 여기 저기 바위틈에 널려 있었다.

구조대는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이 해변지역 바위 틈에서 많은 시신을 한꺼번에 끌어 올리기 위해 곤욕을 치렀다. 이 곳은 해변으로 직접 통하는 길도 없는 험한 곳이라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과 소방구조대는 가까스로 중상을 입은 5명의 생존자를 구조해 근처 병원으로 후송했다.

아프간서 2017년 피난민 44만5000명 발생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무력충돌과 반군 활동으로 인해 피난민 44만 5355명이 생겨났다고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OCHA)이 3일 밝혔다.

OCHA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1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아프간 동부 지역에서만 14만2055명의 국내 난민(IDP)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중 남카프리스 주에서 12만3363명이 생겼으며 6만4513명은 작년 10월 코기아니 일원의 주민소거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성명은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초 이래 코기아니 지구에서는 아프간 군경과 수니파 과격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가 격전을 치르고 있다.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연합군의 공세에 내쫓긴 IS가 아프간으로 흘러들어와 산악지대인 코기아니를 장악하려고 시도하면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2001년 이래 아프간에서 치안 악화와 무장반군의 준동으로 거주지를 떠나 안전한 장소를 찾아나선 난민은 1000만명을 넘어섰다.

뉴스스

목포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 나포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올 들어 처음으로 쌍타망 어선 4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일 오후 1시50분께 신안군 거제도 남서쪽 37km(어업협정선 내측 85km) 해상에서 중국 요녕성 대련선적 쌍타망어선 A호 등 2척을 어획량 축소 및 미기재 혐의로 나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지난 1일 오후 우리측 해역으로 들어와 타망고물을 이용해 각각 5.2~5.5t을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는 축소해 기재한 혐의다.

또 비슷한 시각 인근해역에서 중국선적 189급 쌍타망어선 C호 등 2척도 어획량을 축소한 혐의로 나포됐다.

해경은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실시, 허위로 작성한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각각 담보금 4000만원을 받고 석방했다.

김정식 목포해경서장은 "중국어선 분포 현황을 분석해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무허가 중국어선의 한국수역 침범을 차단하기 위해 기동단대를 투입하는 등 해상경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중국어선 77척을 나포해 담보금 36억4800만원을 징수했다.



강추위속 눈썰매 타는 아이들 영하 10도의 강추위가 몰아친 3일 서울 한강 북서쪽 유원지 눈썰매장을 찾은 아이들이 눈썰매를 타면서 즐거워 하고 있다.

건조한 날씨 잇따른 화재...최대한 몸낮춰 비상구 이동해야

5년간 발생 화재 21만4천건중 28% 겨울 3개월간 발생

건조한 날씨로 인해 겨울철 화재 발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화재 발생시 대피 방법과 행동요령을 잘 숙지해야 한다.

3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신축공사장에서 관불이나 화재 현장에 소방관 80여명과 소방차 24대가 출동해 화재 진화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충북 제천 휘트니스센터에서도 불이나 29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으며 부산 기장군 장안읍 삼각산에서도 대형 산불이 발생해 50ha가 소실되기도 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겨울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데다 거센 바람과 난방기구의 잦은 사용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다른 계절보다 훨씬 높다.

행정안전부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소방청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화재(21만4614건) 중 28%인 5만9942건이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발생했다.

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등 생활서비스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겨울이 5756건(23%)으로 가장 많았다. 원인별로는 담배꽂초나 음식물 조리중에 발생하는 부주의가 41%로 가장 많았고 집속 불량 등 전기적 요인(37%)이 뒤를 이었다.

행안부 화재발생시 국민행동요령에 따르면 먼저 화재가 발생하면 코와 입을 젖은 수건으로 막고 연기가 나는 반대 방향 비상구쪽으로 최대한 몸을 낮춰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유독가스는 위쪽으로 빠르게 이동해 바닥층에 공기가 남아 있을 확률이 높아 몸을 낮출수록 더 오래 버틸 수 있다.

엘리베이터 사용은 금물이다. 전기가 차단되면 추락할 위험이 있는 데다 밀폐된 공간에 갇히면 유독가스를 흡입할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계단을 이용해 아래로 내려갈 수 없다면 옥상으로 대피해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은 소화기와 단독형 화재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주방보다는 현관 쪽에 보관한다. 가족 모두 보관 위치와 사용법을 미리 숙지해 화재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뉴스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미려이는데요... 자제치료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말에는 검진기관이 운영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국가건강검진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129]

h-well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